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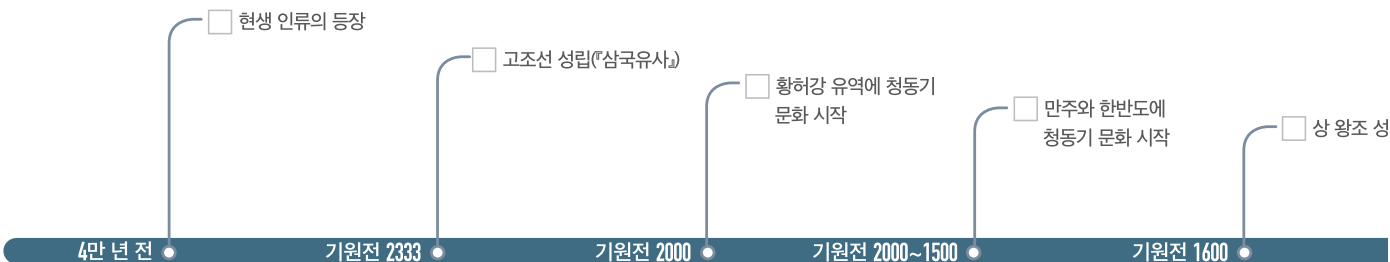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 2 자연환경과 생업
- 3 선사 문화
-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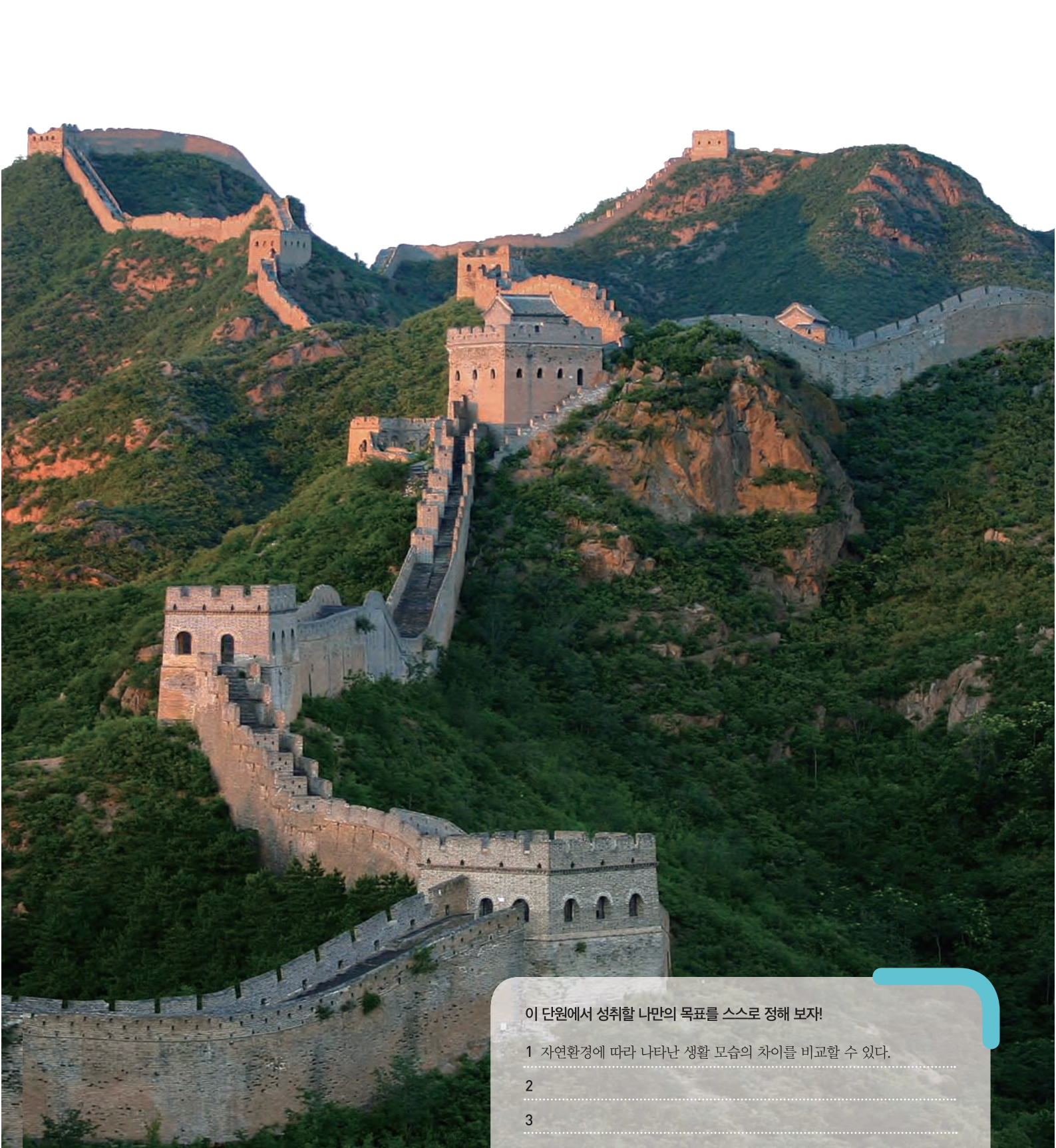
단원 열기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선사 문화를 비교하고, 국가가 성립하여 발전한 과정을 이해한다.

만리장성 ▶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자연환경에 따라 나타난 생활 모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3

춘추 시대 시작

일본 열도에 야요이 문화 성립

진의 중원 통일

고조선, 위만 집권

고조선 멸망

야마타이국의 성장

기원전 770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21

기원전 194

기원전 108

기원후 3세기경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동해



| 생각 열기 |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교와 불교 등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Q 이들은 서로 어떤 면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

1 동아시아의 범위

학습 목표 동아시아 세계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지리적 범위와 특성

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북서 태평양과 접해 있다.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고원, 남북으로는 베트남에서 몽골고원에 이른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의 나라가 있다.

동아시아는 그 범위가 넓고, 지역에 따라 지형·기후·식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한민족, 한족, 일본 민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비열족 등이 거주하며 일찍부터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문화 요소를 공유하였다. 그중에서도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은 중요한 공통 문화 요소였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서구 문화와 충돌하여 일부가 단절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승된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요소는 공동의 번영을 이룰 역사적 자산이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일구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이다.

2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학습 목표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

1980년대 말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 다양한 협력체가 등장하였다. 한·중·일 삼국도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영토 분쟁,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등이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호 이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학습해야 한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자세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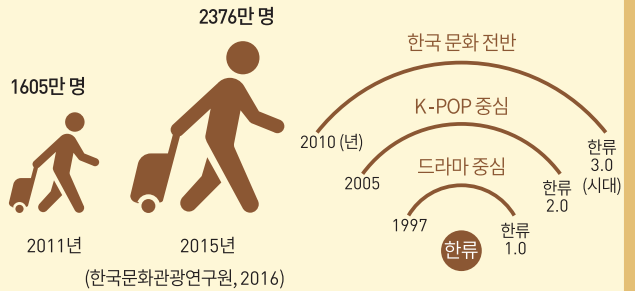
동아시아사 학습의 목적은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있다.

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국사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현존하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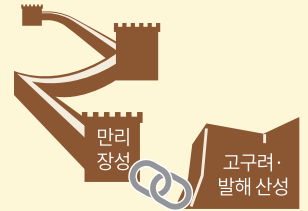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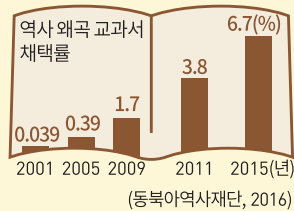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 증가

- ☑ 한·중·일 상호 방문자 수 증가
2011년 1605만 명에서 2015년 2376만 명으로 약 148% 증가
- ☑ 한·중·일 문화 교류 확대
한류 확산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 ☑ 일본의 역사 왜곡
 -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미화
 - 일본 내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률 증가
- ☑ 중국의 동북공정
 - 만리장성 길이 확장 발표
 -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사에 편입



바람직한 동아시아사의 학습 자세는?



2

자연환경과 생업



| 생각 열기 |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가장 긴 만리장성은 중국 농경 민족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만리장성은 흔히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Q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학습 목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지형과 지세

- Q1 지도에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표시해 보자.
- Q2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해 보자.



동아시아의 지형 ▶

동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 구분된다. 동아시아는 서쪽에 평균 해발 고도 4,500 m 이상의 티베트고원이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중국 동부 지역에는 큰 강을 따라 낮은 평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라오허강과 쑹화강 유역의 동베이평원(만주), 황허강 유역의 화베이평원, 창장강 유역의 양후평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반도 서쪽 해안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북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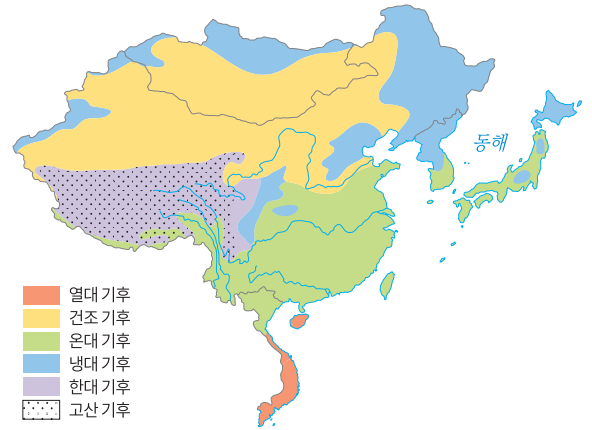
대륙의 동쪽에는 일본 열도와 타이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지역은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은 편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와 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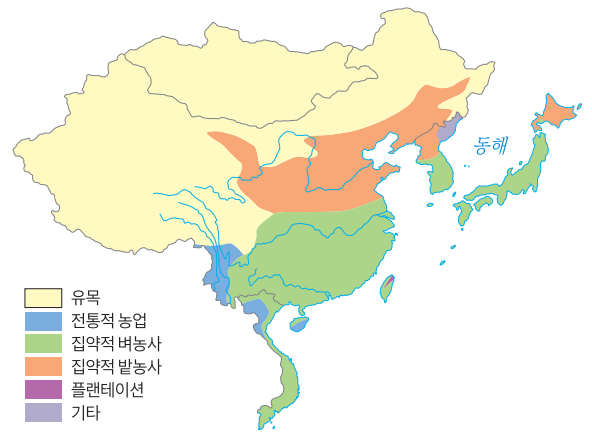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분포한다.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대륙을 향해 불어 비가 많이 내리며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대륙 내부로 갈수록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뚜렷해진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식생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 동부,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 지역은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활엽수림 지대로,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북쪽에 있는 한반도 북부, 만주,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은 침엽수림 지대로 내륙에서는 밭농사와 수렵이, 연해에서는 고기잡이가 주로 이루어졌다.

만주의 일부 지역과 몽골, 티베트고원 일대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농경이 어렵다. 이 지역에는 초지가 널리 분포하여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 동아시아의 기후



▲ 동아시아의 생업



▲ 유목(몽골 초원)



◀ 농경(중국 남부)



▲ 어업(일본 연안)

2 농경과 목축

학습 목표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고, 그 교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는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지역에서는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다. 농경 지역은 다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으로 나뉘었다.

중국의 화중·화남 지역과 산둥반도의 해안가, 한반도의 남서부, 일본의 혼슈와 규슈 지역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화남, 일본의 규슈 남부 등지에서는 1년에 벼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이 가능하였다. 이곳보다 강수량이 적은 화북 지역, 만주, 한반도 북부 등지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졌다.



▲ 벼농사의 전파 동아시아에서 벼농사는 창장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그 후 규슈 지역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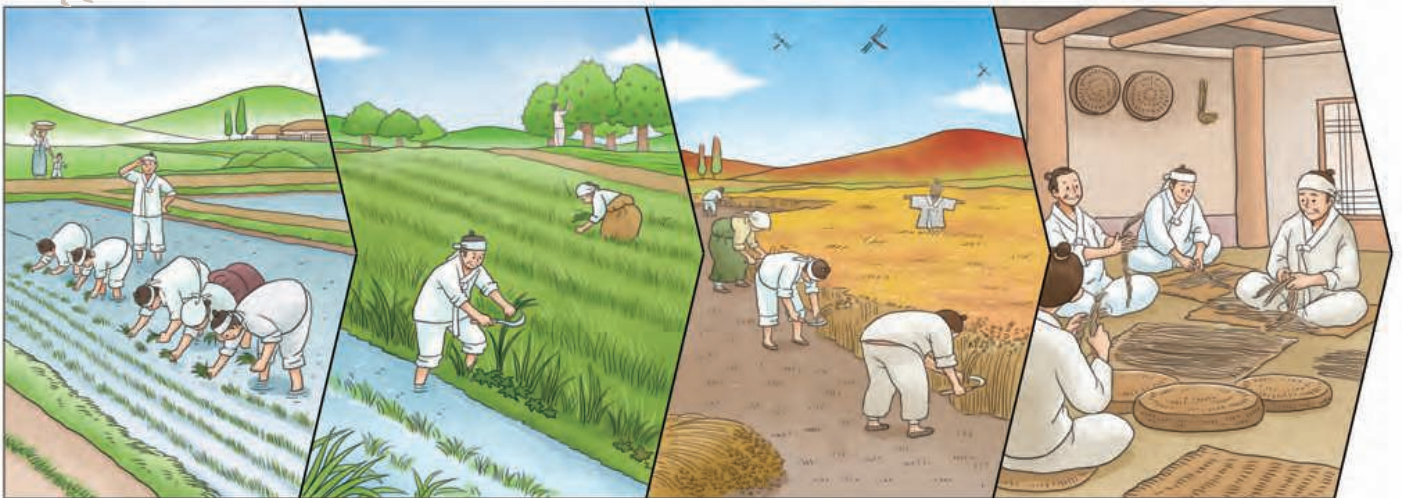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에 황허강 유역의 황토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밭농사는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조·수수·기장·콩 등의 잡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늪지가 많은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았다.

농경민은 계절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곡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사업 등 공동 노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가 조직이 만들어졌다.

농경민의 생활

계절의 순환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



목축과 유목민의 생활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이고 기온이 낮아 곡물 재배가 어려운 내륙의 고원 및 초원 지대에서는 주로 목축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였다.

유목민은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길렀으며 수렵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였다. 이들은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생활 터전을 옮겨 다니며 살았으며,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축으로부터 얻었다. 가축의 젖과 고기, 젖을 가공하여 만든 유제품을 먹고, 가죽과 털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게르 등을 만들었다. 또 가축의 뼈와 뿔을 이용하여 각종 물건을 만들었고, 배설물을 말렸다가 연료로 이용하였다.

유목민은 평소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으며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였다. 이들은 뛰어난 기마 능력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흩어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유목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목 국가를 세운 것은 흉노였다. 흉노는 진·한 대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초원 지대를 장악하여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 이후에도 돌궐, 위구르, 몽골 등이 유목 국가를 세웠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북방 민족이 활동하였다.



▲ 유목민의 전통 가옥 게르 계절에 따라 이동 생활을 한 유목민은 조립과 분해가 쉬운 게르에서 살았다. 게르는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양털을 압축하여 가공한 천(펠트)을 덮어 만든 이동식 가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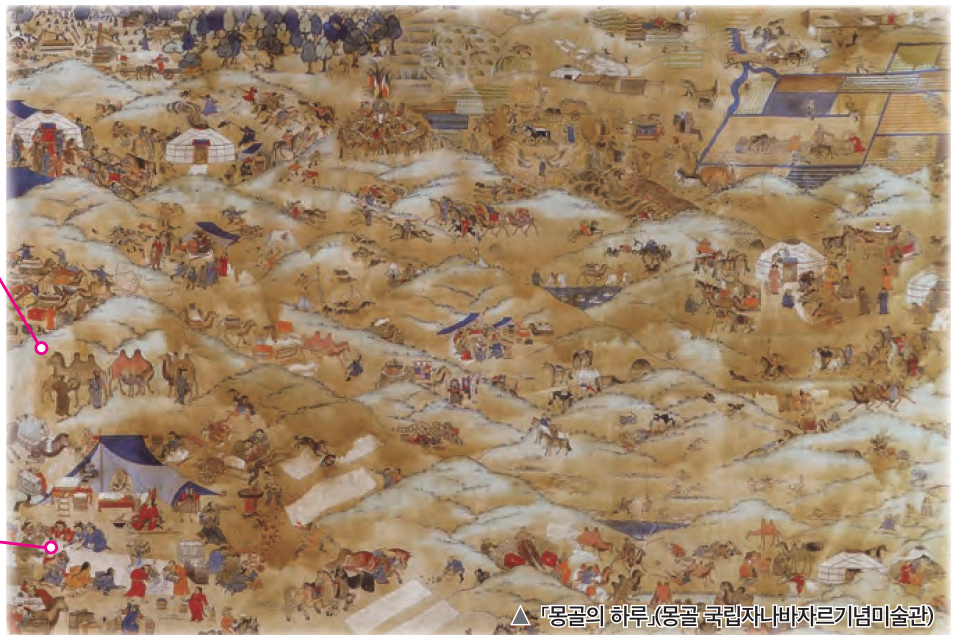
유목민의 생활



▲ 낙타와 함께하는 삶 낙타는 유목민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낙타의 젖은 음료·발효유·치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펠트 짜는 사람들 펠트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몽골의 하루』(몽골 국립자나바자르기념미술관)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교류

유목민은 가죽·모피·말 등을 농경 지역의 곡물·차·황금·비단·무명·누룩 등과 바꾸는 형태로 교역하였다. 때로는 농경민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목민의 목초지 주변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유목민 역시 곡식, 채소와 같은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농경 지역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유목민에게 약탈은 물자를 손쉽게 얻는 방법이었지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경 사회를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정기적인 공납을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후 변화로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생활 근거지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농경민과 유목민이 생활 근거지를 놓고 충돌하였다.

역사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얕잡아 보기도 하였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약탈을 일삼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인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땅에 엮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농경과 유목은 문화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적응한 결과 나타난 생활 모습이다.



▲ 툰유쿠크 비(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툰유쿠크는 돌궐 제국의 명장이었다. 그의 비문에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동미진진 동아시아



중국인의 바지 복장과 의자 생활이 유목민의 영향?

전국 시대에 북방의 강국이었던 조나라는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목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마전으로 맞서야만 했다. 원래 중국인은 남녀 모두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입고서는 말을 타고 달리기가 불편하였다. 이에 조나라 무령왕은 병사들에게 유목민의 복장(호복)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무령왕은 소매가 넓고 혈렁한 윗도리를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바꾸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게 하였다.

또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생활하였던 한족은 유목민의 영향을 받아 침대와 의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염소와 양의 젖을 즐겨 마시는 유목민의 음식 문화도 농경 사회에 전해졌다. 이렇게 농경민의 생활은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다채롭게 변화하였다.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을 입고 ▶
말에서 활을 쏘는 모습(복원도)



◀ 「한희재야연도」(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5대 10국 시대 잔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많은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다.



1 <보기>에 제시된 지역을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 | 보기 |
- 창장강
 - 황허강
 - 라오허강
 - 몽골고원
 - 동베이핑원
 - 티베트고원



2 농경민과 유목민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홍노는 건강한 젊은이가 살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늙은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는데, 이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만 귀히 여기고 노약자를 천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아 있는 형제가 아내로 삼았다고 하던데, 너무 야만적인 것 아닌가?



홍노는 전투를 자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젊은이에게 먹이는 거야. 그래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노인을 천대하는 것은 아니야. 또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가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1) 농경민이 유목민을 야만적이라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

.....

(2) 위와 같이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이 다른 까닭을 써 보자.

.....

.....

3 선사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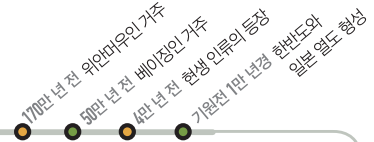


| 생각 열기 |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라오닝성 뉴허량의 제사용 건축 유적에서 발견된 얼굴상이다. 당시 여성의 몸으로 보이는 조각 파편과 함께 발견되어 여신의 얼굴로 추정하고 있다.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여신상의 눈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Q 홍산 문화 외에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1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학습 목표 동아시아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나타난 인류

중국 남서부의 위안머우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치아 화석이 발견되었다. 베이징에서는 50만 년 전쯤에 출현한 좀 더 발달한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불과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 아니라 몽골, 한반도 지역에서도 인류 화석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열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의 주요 구석기 유적지와 인류 화석 출토지



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인은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도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이겨 내고 맹수를 쫓아냈으며, 음식을 익혀 먹었다. 또 언어를 사용하여 무리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무리와 문화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무리에 전해 주었다.

구석기인은 찌개, 주먹도끼 등의 뿔석기와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어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구석기인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였고, 경험이 많거나 지혜로운 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또한 사냥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 벽이나 바위에 사냥감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동아시아에 오늘날과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따뜻한 기후 속에 매머드 등 대형 동물이 줄어들고, 사슴이나 멧돼지 등 작고 빠른 동물이 번성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펀지피르개와 같이 나무나 뼈에 꽃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정교한 석기인 간석기를 만들었다.



▲ 찌개(중국 산시성 출토)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뿔석기로, 커다란 자갈들을 깨뜨려 만들었다. 동물의 뼈를 찢거나 거친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 주먹도끼(한국 경기 출토) 구석기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한 도구로, 찌개나 자르개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 스펀지피르개(일본 가고시마현 출토) 얇게 쪼갠 돌조각의 양쪽을 다듬은 것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주로 자루에 연결하여 창 축이나 화살촉으로 사용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벽화에 나타난 구석기인의 삶

구석기인은 자신이 살던 동굴 벽이나 자주 사냥을 다니던 산속의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나 라스코 동굴 벽화도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몽골 호이트 쉐헤르 동굴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남아 있다. 벽화에는 산양 등 사냥감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사냥감의 번성,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몽골 호이트 쉐헤르 동굴 벽화

인물 사건 문화 제도

2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학습 목표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각 지역 토기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돌화살, 갈돌과 갈판 등 다양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감과 그물을 만들었고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토기는 처음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저장용 도구나 의례용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신석기인은 수렵과 채집 외에도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가나 구릉 지대에서 조·수수·밀·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양·소·돼지 등의 가축을 길렀다.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신석기인의 주거 모습도 달라졌다. 신석기인은 큰 강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움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둘레에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가옥이었다. 한편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나무 기둥으로 기초를 세우고,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 가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인구 증가와 사회적 분업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늘어났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부족장의 권한이 조금씩 강해졌다. 한편 신석기인은 자연 현상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공동의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 반포 유적(복원 모형)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황허강 유역에서는 마을 주변에 도랑을 설치한 취락이 일반적이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황허강, 창장강, 랴오허강 유역,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 여러 지역에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양사오 문화

황허강 중·하류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경 채도를 사용하는 양사오 문화가 시작되었다. 채도에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얼굴 무늬, 물고기 무늬 등을 그려 넣었다.



▲ 채도(중국 산시성 출토)

다원커우 문화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는 백도 이외에도 전기에는 홍도, 후기에는 흑도를 사용한 다원커우 문화가 발전하였다.



▲ 세 발 달린 백도 주전자(중국 산둥성 출토)

룽산 문화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의 뒤를 이어 두 문화를 아우른 룽산 문화가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흑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회전판을 사용하여 토기를 만들었다. 제사용으로 보이는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 흑도(중국 산둥성 출토) 달걀 껍질만큼 얇은 흑도이다.

- *채도: 그릇의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은 토기
- *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 *회도: 잿빛을 띠고 거칠게 만들어진 토기

홍산 문화

랴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와 용 모양의 옥기 등 세련된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 홍산 문화의 토기(중국 랴오닝성 출토) 안은 비어 있고 밑바닥이 없는 토기로, 돌무지무덤 유적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제사용 도구로 추정된다.

용 모양의 옥기
(중국 랴오닝성 출토) ▶



관오허강 홍산 문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후 만주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은 돌보습과 돌괘이 등으로 조·기장을 재배하고 사냥과 어로 활동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 빗살무늬 토기(한국 서울 출토) 만주와 한반도 일대, 시베리아 등지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 암사동 움집(한국 서울)

양사오 문화

황허강

다원커우 문화와 룡산 문화

허무두 문화

허무두 문화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허무두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흑도, 회도 등이 만들어졌다.



▲ 돼지 그림 토기(중국 저장성 출토)



▲ 허무두인의 가옥(중국 저장성)

조몬 문화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토기가 특징적이다. 조몬 토기란 이름은 토기 표면에 새겨줄 무늬가 새겨졌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조몬 시대 사람들은 농경보다는 사냥과 채집, 어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 조몬 토기(일본 니가타현 출토)

여성 모양의 토우
(일본 나가노현 출토) ▶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토우를 남겼다.



◀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일본 아오모리현) 조몬 시대의 집단 취락 유적지로 추정된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작

토기는 진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린 후 불에 구운 것으로,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도 녹지 않는다. 이러한 토기 제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였다.

1

토기를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토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인간은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 현장에서 진흙 덩어리가 돌맹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모습을 본 후 우연히 토기 제작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

토기를 어떻게 제작하였나요?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토기는 진흙으로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등을 통해 모양을 만든 후 겉면과 안면을 다듬고 겉면에 무늬를 넣었다.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그늘에 말려 불에 구웠다. 이후 모양을 만드는 법이 발전하면서 회전판을 이용하여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3

토기 사용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 가루로 만들어 물에 갠 다음 토기에 넣고 끓여 뚝은맛을 우려내면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조리 과정에서 세균이 죽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고, 음식이 부드러워져 소화와 영양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가 늘어났다. 또 토기를 사용하면서 식량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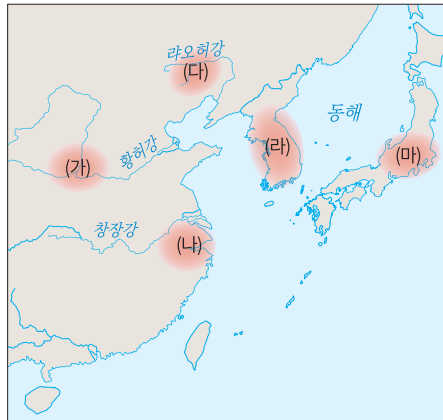
- 1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의 토기 모양을 교과서 20~21쪽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자.
- 2 토기 사용으로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비교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구분	도구	경제	주거
구석기 시대	(ⓐ), 뼈 도구	사냥, 채집, 어로	이동 생활(동굴, 막집 등)
신석기 시대	간석기, (ⓑ)	(ⓒ)과 목축의 시작	정착 생활(㉓ 등)

2 지도에서 (가)~(마)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를 <보기>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3 가상의 유적 발굴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홍산 문화 유적 발굴 보고서

중국 랴오닝성 뉴허량 유적에서 수천 년 전의 제사 유적인 제단과 여신의 신전, 돌무지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산 정상에 건립된 신전에서는 여신과 용 모양을 한 동물의 조각상, 그리고 제사용품이 발굴되었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여신의 두상이었다. 이 밖에도 머리가 없고 다리가 짧은 작은 임신부의 입상이나 대형 조각상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피라미드식의 거대한 돌무지무덤에서는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용 모양을 새긴 옥기가 많았다.

(1) 홍산 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론해 보자.

.....

(2) 동아시아 지역에서 홍산 문화 이외의 신석기 문화를 찾아 그 특징을 설명해 보자.

.....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기원전 500	기원전 200	100
한국	중세 고조선		삼국 시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일본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 생각 열기 | 상나라 후기의 도읍이었던 은허에서 발견된 네모난 정으로, 사모무정으로 불린다. 높이가 133 cm, 무게가 875 kg에 이른다. 화려한 문양과 단정하고 중후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청동 제기로, 상나라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을 보여 준다.

Q 상나라 사람들이 거대한 청동 제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청동기 문화의 발전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유역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2000~1500년경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3세기경 일본 열도 청동기·철기 문화 시작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기원전 2000년경 동아시아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이 함께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장신구나 무기, 제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반달 돌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사유 재산제가 확산되면서 빈부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확대되어 갔다.

청동기를 먼저 보유한 집단이 주변의 약한 집단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배자가 주변 집단을 통합하면서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도 출현하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황허강 유역의 룡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다. 얼리터우에서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 제사 용기 등이 발견되었다. 궁전과 성벽을 갖춘 이 유적은 초기 도시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기록상의 하 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몽골 초원 지대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단검 등과 같은 청동 무기, 재갈 등의 기마 도구, 사슴돌, 판석묘, 거대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또한 청동 방울·청동 거울 등의 제기 및 장신구, 민무늬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철기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농경에 바탕을 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 사슴돌 몽골 등지에 분포하는 후기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북방식 단검(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출토) 몽골 지역에서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을 많이 사용하였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으며, 버섯·동물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 비파형 동검(중국 랴오닝성 출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몸체와 손잡이가 분리되었다.



황허강

▲ 상의 도끼(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상 후기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윗부분의 원형 도안 사이에 짐승 머리가 새겨져 있다.



▲ 고인돌(한국 강화)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주의 랴오닝성과 일본 열도의 규슈 등지에 분포한다.

동해



▼ 야요이 토기(일본 도쿄대박물관) 1884년 도쿄에서 발견된 토기이다. '야요이'라는 이름은 이 토기가 발굴된 지역에서 따온 것이다.

▼ 엘리터우 궁전(복원 모형)

하 왕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궁전 유적을 복원한 것이다.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 술잔은 제기로 보인다.



◀ 엘리터우의 청동 술잔



▲ 동탁(일본 시즈오카현 출토) 야요이 시대에는 동검 외에도 동탁이 많이 만들어졌다. 동탁은 당시 주술적 의례를 위한 도구로,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2 국가의 성립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국가의 통치 제도와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원전 1600년경 상 왕조 성립
 기원전 1050년경 주 왕조 성립
 기원전 770 춘추 시대 시작
 기원전 221 진의 중원 통일
 기원전 209 흉노 황노 목욕 선우 즉위
 기원전 194 고조신 위만 집권
 3세기경 아미타이국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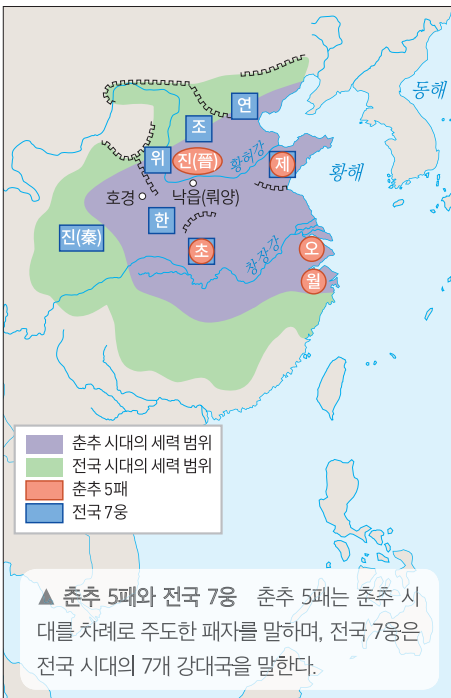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중원 지역의 국가 형성과 주의 발전

문헌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황하강 중류 지역에 하 왕조가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하에 이어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이 세워졌다. 상은 실재가 확인된 중원 지역 최초의 왕조이다.

상은 여러 도시가 연맹하여 만든 나라였다. 상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갑골문이 발굴되었는데, 갑골문은 상의 왕들이 제사장을 겸하며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음을 보여 준다. 상은 기원전 11세기 주에 멸망하였다.

주는 도읍 부근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영토를 친족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한 중법적 봉건제였다. 주 왕은 자신을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라 부르고,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전개

기원전 8세기 견융족이 서북쪽에서 침략하자 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춘추 시대라 하는데, 주 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고 유력 제후들이 왕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를 주도하였다. 기원전 5세기에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는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신하가 제후의 자리를 빼앗는 등 하극상과 전쟁이 계속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제후들은 앞다투어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철제 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은 봉건제를 대신하여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제후가 부국강병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경쟁적으로 모집하면서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진의 중원 통일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진은 법가 사상가인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하였다(기원전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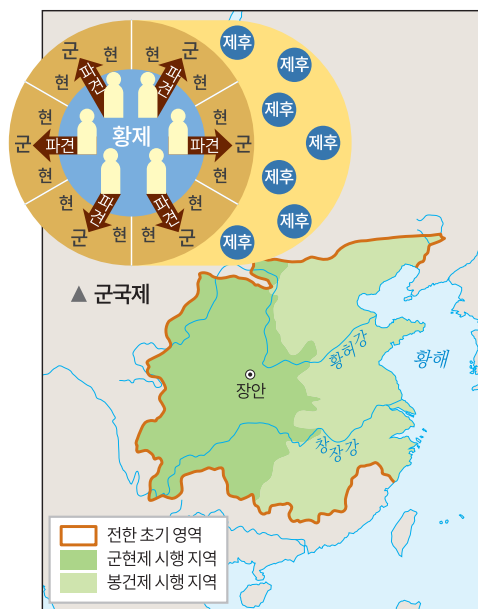
전국을 통일한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3공 9경의 관료를 두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군현제를 시행하였고, 도량형·화폐·문자를 통일하였다. 또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다. 그러나 시황제가 죽은 후 진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대규모 토목 공사와 엄격한 법치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라 일어났다.



한의 재통일

진이 혼란에 빠지자 유방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다투었는데, 유방이 세운 한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한 고조(유방)는 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하여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그 후 한은 차츰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무제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업 통제를 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1세기 초에 외척인 왕망이 정권을 잡아 신을 세우고 한을 멸망시켰으나, 호족의 후원을 받은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웠다(후한).



탐구 활동 2

진의 통치 정책



자료 1

태자가 법을 범했다. 상앙은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자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다음 임금인 사람이므로 형벌에 처하기는 난처한 일이라고 하여, 그 대신 태자의 스승을 처벌하였다. 다음 날부터 백성은 모두 법을 지켰다. - 『사기』 -

자료 2

사관이 가진 문서 중 진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도록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가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관에 바치게 한 후, 군의 태수와 도위로 하여금 함께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 『사기』 -

1. 자료 1 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의 통치 사상을 말해 보자.
2. 시황제가 자료 2 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목적을 말해 보자.

흉노의 성장



▲ 흉노의 금관(중국 내몽골박물관)
오르도스 지방에서 발견된 흉노의 금관이다. 몸체에 호랑이, 산양, 말 등이 웅크린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고 꼭대기에 매가 앉아 있다.

진이 중원을 통일할 무렵,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흉노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는 진의 공격을 받아 근거지를 상실하고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마술과 기동성을 갖춘 흉노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하였다. 초원 지대에 흩어져 살던 흉노는 짧은 시간에 걸쳐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였다.

흉노 제국은 초원 지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였다. 제국의 최고 군주는 '선우'라고 불렸다. 선우의 부인은 '연지'라고 불렸으며 황후에 해당한다. 선우는 특정 씨족 집단에서 배출되었으며, 그들과 혼인을 맺었던 몇 개의 인척 씨족이 있었다. 이렇게 혼인으로 결합한 군주와 인척의 씨족이 흉노의 핵심 지배층을 이루었다.



▲ 흉노 제국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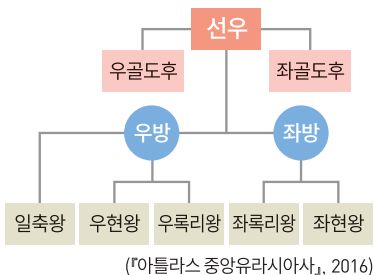
기원전 209년 목탁 선우가 즉위하면서 흉노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동쪽으로 동호를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서쪽으로는 월지를 몰아냈다. 또한 남쪽 오르도스 지방과 북쪽 바이칼호 방면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남으로 중국의 한을 압박하여 한 고조를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흉노는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해졌고, 후한 대에 선우 자리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서역과의 중계 무역 이익을 둘러싸고 후한과 다투던 북흉노는 2세기 중반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남흉노는 후한의 일부로 자리 잡고 국가 조직을 유지해 갔다.

인물 사건 문화 제도

동아시아사 바깥과

흉노의 통치 조직



▲ 흉노의 통치 조직

흉노의 최고 통치자 선우는 '탱리고도선우'의 줄임말이다. 흉노어로 '탱리'와 '고도'는 각각 하늘과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우의 권위를 하늘이 부여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우는 흉노 제국을 중앙과 좌방, 우방으로 삼분하여 다스렸다. 중앙은 선우가 직접 통치하고 좌방은 좌현왕을 비롯한 좌방왕장들이, 우방은 우현왕을 비롯한 우방왕장들이 다스렸다. 이러한 삼분 체제는 이후 유목 국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흉노의 정치 체제는 농경 국가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느슨한 편이었으며, 행정 조직이 곧 군사 조직이었다.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나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였다. 고조선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거나 대립하면서 성장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제정하였다.

-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 『한서』 지리지 -

0

「8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8조법」은 고조선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사유 재산을 중시하였으며,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위만이 연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다. 위만은 고조선의 변경 일을 담당하면서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무렵부터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다. 만주 송화강 일대에는 예맥족이 세운 부여가 성장하여 연맹 국가로 발전하였다. 부여의 왕은 중앙을 통치하였으며, 큰 종족적 기반을 가진 대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삼한이 성장하였다. 삼한은 수십 개의 소국이 형성한 연맹체로 농경이 발달하고 제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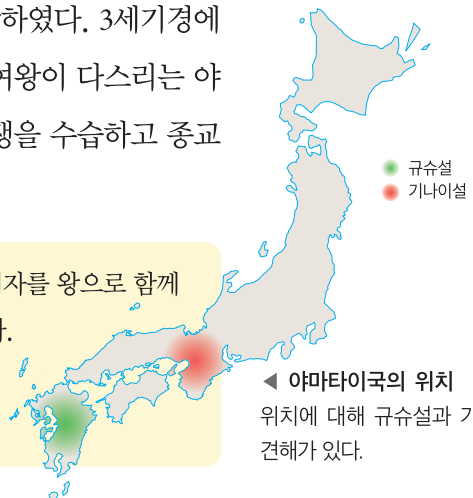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3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에 3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는데, 이 중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히미코 여왕은 소국들 사이의 전쟁을 수습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왜국이 어지러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여자를 왕으로 함께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라고 했다. 주술을 잘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



▲ 기원전 2세기 무렵의 한반도



◀ 야마타이국의 위치 야마타이국 위치에 대해 규슈섬과 기나이섬, 두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 조직의 발전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는 초기에 왕이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에서 점차 행정 제도와 법률·군대·감옥 등을 갖춘 국가로 발전해 갔다.

상

상의 왕은 국가의 많은 일에 대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제사를 지냈다. 갑골문에 따르면 거의 일 년 내내 제사를 드렸으며, 그때마다 엄청난 희생물이 신에게 바쳐졌다. 제사 의식은 중요한 통치 행위였다. 상의 왕은 제사 때 사용할 각종 희생물의 공급과 청동기 제작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동원해야 했다.



◀ 갑골문(중국 허난성 출토) 거북의 배 껍질이나 짐승의 어깨 뼈로 점을 친 후, 점을 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글자를 말한다.

주

주 대에는 봉건제, 관료제 등 상과는 다른 정치 제도가 발전하였다. 주 대 청동기에는 그 소유자가 세운 공적과 함께 왕으로부터 분봉되거나 관직을 받은 사실, 이를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 청동기를 만든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담긴 청동기 역시 제사에 쓰이는 도구였다. 또 이 청동기를 사용하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지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정 정치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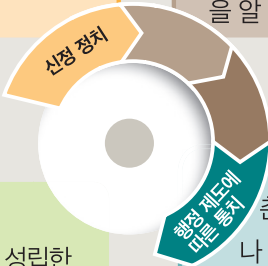


▲ 의후축계(중국 장쑤성 출토) 주 왕이 의후(宜侯)를 책봉하면서 토지와 백성, 각종 청동기 등을 주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한반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한 고조선의 단군왕검도 제정일치 사회의 신정적 지배자였다.

그러나 고조선도 점차 왕위를 세습하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하며 체제를 갖추어 갔다.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신정적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적 통치 체제를 확립해 갔다. 게다가 제자백가의 출현은 합리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두드러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전국 시대에는 기존 질서를 대신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 행정 제도가 갖춰졌고, 군주들은 효율적 관료제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 진율 죽간(중국 후베이성 출토) 진이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여 토지 분배를 바탕으로 조세·요역·병역 등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 1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정치 제도의 특징을 말해 보자.
- 2 고조선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체제의 정비 모습을 찾아보자.

3 국가 간의 교류와 전쟁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기원전 200 평성 백등산 전투
 기원전 139 한, 서역에 장건 파견
 기원전 121 한,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냄
 기원전 109 한, 고조선 공격
 기원전 100 고조선 멸망

중원 왕조와 흉노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시황제는 장군 몽염에게 대군을 주어 흉노를 공격하게 하였다. 진은 흉노를 북방 초원 지대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하였다. 그 후 흉노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유방이 중원을 통일한 직후 흉노의 목탁 선우는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였다. 한과 흉노의 대군이 평성에서 부딪쳤는데, 한 고조는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한 고조는 흉노에 비단 등의 공물을 바치고 황실의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등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동안 흉노는 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 서역과 한 사이의 중계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다. 한 무제는 기원전 133년경부터 흉노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였다. 한은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기마병을 육성하였고, 위청과 광거병 등 유능한 장수의 활약으로 흉노에 승리를 거두었다. 흉노는 고비 사막을 넘어 후퇴하였다.



▲ 마담흉노 석상(중국 셴양) 무릉 박물관 광거병 묘 앞에 세워진 석상으로, 말이 흉노인을 발로 밟고 있다.



▲ 한의 최대 영역과 장건의 서역 행로

흥미진진 동아시아



장건은 왜 서역에 파견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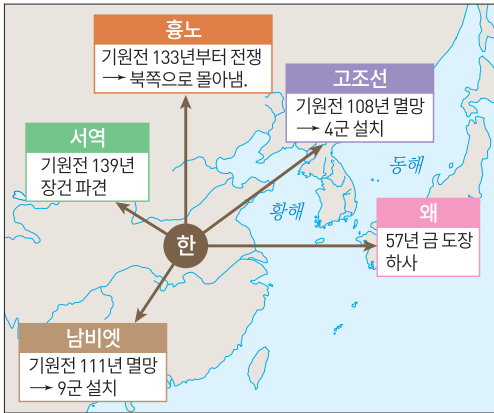
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흉노가 서쪽으로 쫓아낸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장건은 흉노의 포로로 잡혀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100여 명을 거느리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흉노인 아내와 길 안내자 감보만이 그를 동행하였다.

한과 대월지의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건은 이 시기 서역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무제는 그동안 흉노에 공물로 보내거나 약탈당한 비단이 서역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비단 수출과 서역의 말 확보를 위한 전쟁과 서역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 장건의 출사도(중국 둔황 벽화)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 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만주·한반도·일본 열도의 국가와 중원 왕조



▲ **한의 대외 정책** 한은 흉노를 몰아내고, 남비엣과 고조선을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하였으나, 결국 연의 공격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빼앗겼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한반도 남부 세력과 한의 교역을 막아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맞섰으나 지배 세력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부여는 중원의 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여는 한으로부터 옥갑과 청동 거울 등을 수입하고, 말·옥·구슬·담비 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부여의 유적에서 북방 계통의 동물무늬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여가 북방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지역의 소국들은 낙랑을 비롯한 한 군현과 교역하면서 중원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삼한 중 진한과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였으며 이를 낙랑, 대방 등과 일본 열도에 수출하였다.

1세기경 일본 열도의 소국 중 하나는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여 ‘한위노국왕’이라는 금 도장을 받았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후한이 멸망한 후 위에 조공하였고, 위는 히미코에게 ‘친위왜왕’이라는 칭호와 거울 등을 하사하였다.

탐구 활동

한반도 및 일본 열도 국가의 대외 교류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자료 1

한(변한)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고팔 때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하였다.

- 『삼국지』 위지동이전 -

자료 2

광무제 중원 2년(57)에 왜의 노국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하였는데, 사신은 대부분을 자칭하였다. 노국은 왜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광무제는 노국 사자에게 도장을 하사하였다. 안제 영초 원년(107)에 왜의 국왕 수승 등이 생구(노예나 전쟁 포로) 160인을 바치고 황제에게 알현하기를 원하였다.

- 『후한서』 동이열전 -

한위노국왕 도장(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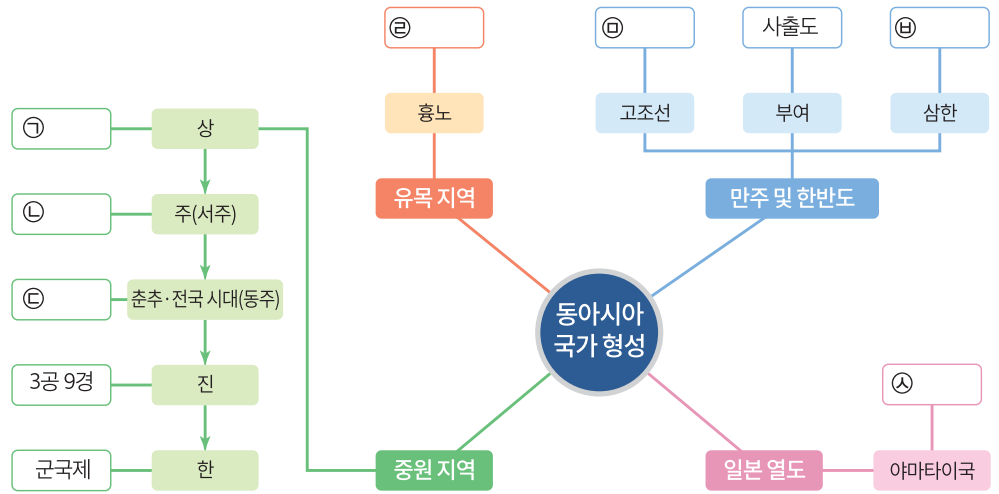


1. **자료 1** 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교류를 말해 보자.
2. **자료 2** 에서 왜가 후한에 공물을 바치거나 황제를 알현하고자 한 까닭을 말해 보자.

스스로 학습



1 동아시아의 국가 형성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 | 보기 |
- 선우
 - 히미코 여왕
 - 8조법
 - 제자백가
 - 봉건제
 - 마한, 진한, 변한
 - 갑골문



2 한 무제와의 가상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 보자.



▲ 한 무제(기원전 156~기원전 87)

기자: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제:

기자: 흉노와의 전쟁 이후 고조선을 공격하였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제:

기자: 오랜 전쟁으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셨습니까?
 무제:

힘 잡는 단원 평가

기원전

고조선 성립(삼국유사) 2333

황허강 유역 청동기 문화 시작 2000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시작 2000~1500

상 왕조 성립 1600

주의 동천(뤼양) 770
① 시작

② 의 전국 시대 통일 221

한 건국 202

고조선 194
③ 의 집권
철기 문화 본격 수용

한 서역에 139
④ 파견

한 무제의 공격으로 108
⑤ 멸망
왕검성 함락

기원후

야마타이국 성장 3세기경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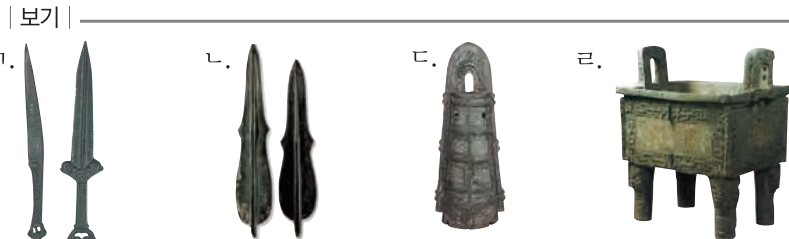
1 <보기>에 제시된 신석기 문화를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 보기 |
ㄱ. 룡산 문화 ㄴ. 조몬 문화 ㄷ. 홍산 문화 ㄹ. 양사오 문화 ㅁ. 허무두 문화



2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유물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중원	몽골	만주·한반도	일본



3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중원 지역	상	갑골문 제작, 신정 정치(제정일치)
	주	종법적 ㉠ 시행,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진	지방을 ㉡로 통치, 3공 9경의 관료들 등.
	한	㉢ (군현제와 봉건제 절충) 시행
유목 지역	㉣	최고 통치자 선우, 선우 아래 제국을 분할 통치함.
만주·한반도	㉤	「8조법」 제정, 왕 아래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 마련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20쪽 확인

2 청동기 문화의 발전

24쪽 확인

3 국가의 성립

26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찾아 모둠별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1 모둠 활동하기

1. 5~6인을 한 모둠으로 한다.
2.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을 최근 신문 기사 또는 방송 뉴스에서 조사한다.
3.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요약·정리한다.
4.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5. 모둠별 토론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2 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

1. 모둠별로 가장 큰 전지 1장과 사인펜, 색연필 등 필기구를 배부한다.
2. 전지를 가로로 놓고 삼등분하여 왼편에는 당면한 문제점, 가운데에는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오른편에는 토론한 내용을 모둠원이 역할을 나누어 적는다.
3. 작성한 글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 대표 1~2인이 발표한다.

유의점

1.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적절한 문제를 찾아 주제로 선정한다.
2. 문제점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이 도출되도록 한다.

예시

2016년 일본에서 나타난 혐한 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일본 내의 혐한 분위기 형성	혐한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해결 방안 모색
일본의 우익 단체는 주말이면 도쿄의 한인타운인 신오쿠보나 한인 상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인을 대상으로 '죽어라', '일본을 떠나라' 등의 욕설을 퍼붓는 등 사욕을 벌여 왔다. 이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로 불리는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6. 5. 24. 00 신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내부의 강경적 경기 침체 2.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따른 위기감 3. 쿠쿠 세력의 확산 4. 과거사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증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중-일 공동 역사 연구 2. 동아시아사 학습 3. 외교적 차원의 접근